



최근 순창에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면서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대폭 높아지고 있다.

순창 문화향유기회 확대

작은영화관 · 청소년문화의 집 · 향토관 등 다양한 시설 이용 증가

최근 순창에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면서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대폭 높아지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27일 개관한 순창작은영화관 '천재의공간 영화산책' 누적 관람객이 3만명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개관 7개월여만에 순창군 인구 정도의 주민들이 작은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한 셈이다.

작은영화관 측은 그동안 개봉작 위주로 상영작을 편성하고 최신 영화를 대도시와 동시에 상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 점을 성공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또 영화관 개관 콘서트, 31절 기념 호국영화 상영 등 다양한 이벤트도 인기의 한몫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는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각종

영화무료 상영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 기획전도 진행해 군민들이 자주 찾는 영화관을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영화관 2층에 자리 잡은 청소년문화의 집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청소년문화의집은 평일에는 40여명, 주말에는 하루 100여명의 넘는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주말에는 청소년들이 문화의집에 줄을 선 풍경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청소년센터에는 밴드, 밴드, 노래연습실, 포켓볼 등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읍 중심가에 위치해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인기의 한 비결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올 해부터 향토관에서 정기적으로 펼

쳐지는 드림팝 콘서트도 화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사)드림필모케스트라가 진행하는 공연에서는 는 총 50여명의 연주자와 국내 정상급 국악인, 가수 등이 함께 출연하는 대형 오케스트라 공연을 진행해 군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총 8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순창군은 올해 미술관이 개관해 박남재회백작품 전시회를 진행했으며 현재 섬진강 전국 사생공모전 공모 작 등을 전시하고 있다.

또 일품공원에서 주말 지역 생활문화예술동호인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등 율한순창에서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돼 군민들의 즐길거리가 한층 강화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갈수록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판로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환주 시장은 취임이후 부터 기업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인들과 수차례 소통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누는 등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우선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위해 총34억 규모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8천만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7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소도시 중소기업의 특성상 판로확보와 영업활동에 많은 제약이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국·내외 박람회 참가에 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KINTEX와 KOEX 등의 박람회 참가를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 극복과 판매 중소기업의 판로의 다양성 확보와 수출 확대를 위해 남원시에서는 2016년 6월 21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한국무역협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희망한국, 방방곡곡 수출원정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내수기업으로 수출을 처음 시작하려는 기업과 추가적인 해외 마케팅 정보가 필요한 30여개의 업체가 참가하여 해외마케팅 기초 강의와 수출기업과의 1:1 자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출보육료 지원 및 무역기금 등을 현장에서 신청하였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온/오프라인 겸용 외국어 카달로그(50만원 상당)를 무료로 제작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참여기업들의 수출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과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국립돌리사



임실군 노인복지관 통합안전교실 운영

임실군노인복지관(관장 한갑수)은 관내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화려한 은빛정춘 어르신 통합안전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북도 119안전체험관에서 소화기·화재대피, 지진·태풍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교통안전·생활안전체험, 4D재난 영상관람 등 1:1 맞춤형 교육으로 오는 8월까지 진행된다.

한갑수 관장은 "이번 교육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르신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굳이 추구하는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고창군 조피볼락 91만마리 방류

고창군이 날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충, 육성하기 위해 조피볼락을 방류했다.

군은 22일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조피볼락 91만마리를 구시포 및 동호 해역에서 유관기관과 지역 어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조피볼락 치어는 전장 6cm이상 크기로 전문기관 질병검사를 모두 통과한 우량종묘로 2년이 지나면 성어가 되어 관내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영광 한빛원전본부에서도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지난 16일 구시포항에서 조피볼락 치어 3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고창군 수협에서도 치어 방류가 예정되어 있는 등 연안 해역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19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백합 155톤, 넙치 3,818톤, 조피볼락 2,433톤 등을 방류 및 살포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개발·보급하고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문화원, 내고장 알기 문화유적 답사

임실문화원(원장 최성미)은 22일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내 고장 알기 운동, 호국의 길을 가다" 주제로 열린 이번 문화유적 답사는 임실문화원 관내 향일 독립운동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라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임실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오수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방문을 시작으로 한 이번 답사는 구한말 지방적으로 의병을 일으켜 많은 전과를 올렸던 정재 이석용 의병장과 28의사를 배향한 송추사를 참배하고 성수면 태평리 대왕재 추모공원 내에 위치한 현충전적 의춘추모비를 답사했다.

이어서 선조들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한 신평 생활사 박물관을 관람하고 갑오동학혁명 기념비, 기미 3·1운동 기념비, 무인 별애 운동 기념비를 한지리에 위치한 운암 3대 운동 기념비를 답사하며 선조들의 항일 독립운동정신을 기렸고 3·1운동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이신 지암 박준승선생의 생가를 답사하는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최성미 문화원장은 "우리 고장 임실은 예로부터 충·효의 고장으로 구한말부터 3·1운동을 거쳐 해방에 이르러 지금까지 수많은 항일독립 운동가가 배출되었다"며, "이번 문화유적 답사로 우리 아이들이 호국보훈의 마음을 새삼 다짐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문화원은 매년 내 고장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관촌초, 오수초, 기림초, 임실중학교 등 학생 102명이 답사에 참여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시, 상반기 공모사업 52개 선정 지역발전 탄력

어린이청소년 도서관건립 · 친수공간 조성 등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16년 상반기에 대형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지역 발전에 큰 탄력을 받고 있다.

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골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 등 52개 사업(총사업비 985억8,600만원)이 선정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문화관광분야에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건립(52억원), 춘향제 대표공연예술제(15억원), 한옥자원활용 야간산실공연(3억원) 등 19건에 132억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이 가장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원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202억원), 주천 웅치마을 생활여건 개선사업(12억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5.2억원), 일자리창출지원사업(1.7억원) 등이다.

특히 지역발전이 큰 자릿대가 될 수 있는 대형공모사업이 눈에 띈다.

침체된 농촌지역을 농업산업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사업이다.

이 사업은 3년간 총사업비 80억원이 투자되며 국비가 70% 지원된다. 그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경쟁이 아주 치열했고 남원시가 최종 6개소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농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강변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 대산면 금강지구 농촌융복합개발사업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방동지구사업은 52억원(국비)을 투자하여 대강변 방동리 85ha에 배수로 정비해서 상습침수문제를 해결하고 금강지구사업은 대산면 금성리, 옥우리, 화정동 지역 144ha에 양수장, 송수관로를 설치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원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02억 원을 포함한 전체 투자하여 도봉동 인도교부터 주천면 구룡포까지 수변 생태태양공원, 습터정비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천면 웅치마을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13억원을 2018년까지 투자하여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 경관개선, 슬레이트개량 등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만성질환 없는 순창 만들기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교육' 진행

지역주민대상 총 6회 걸쳐

만성질환 없는 순창을 만들기 위한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교육이 진행돼 군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이번 건강증진 교육은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주관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회당 40여명씩 총 240여명에 대해 6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지난 22일 건강장수연구소에서 건강증진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조선대병원 영양자영양팀장이 당뇨인을 위한 당뇨병과 바른식생활이라는 주제로 교육의 문을 열었다.

강의에서는 연구소에서 제작한 건강밥그릇으로 본인에게 맞는 밥의 양(칼로리)과 당뇨식단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교육생들이 알기 쉽게 당뇨식단에 다가서게 도와 줬다.

두 번째 강의는 당뇨교육 이해정 간



호사가 자가혈당측정법과 발관리라는 주제로강의를 시작했다. 당뇨환자 스스로 혈당체크를 통해서 당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혈당측정기 사용법을 익히고, 집에 돌아가서도 직접 혈당을 측정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이 교육의 핵심목표다.

마지막 시간에는 당뇨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운동 시간도 진행돼 당뇨인

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법도 소개했다.

이번 교육은 당뇨만성질환에 대한 주민들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뇨예방 및 당뇨극복을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당뇨에 대한 영양, 간혹, 운동이 연계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과정이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생활쓰레기 공동활용 '환경부 장관상' 수상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2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환경부 주관 정부3.0 환경행정 우수사례 발표경진대회에서 '생활쓰레기 혐오시설 공동활용'으로 환경부 장관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생활쓰레기 혐오시설 공동활용' 사례는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개 시군이 기관간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자동화 선별시설을 설치·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정부3.0 협업 선도사업이다.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전국의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80여건의 우수사례 중 최종 경선까지 올

라온 8개의 사례가 최종 경쟁을 벌였다.

남원시 사례는 특히 혐오냄비(NMB)시설을 공동활용하고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3개시군간 예산분담 등 정부3.0의 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남원시는 2017년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이 종료예정인 상황이고, 생활쓰레기 총 배출량 중 30~40%가 재활용 쓰레기인 점을 볼 때 자동화선별 시설 설치로 매립률을 낮추고 사용연한이 연장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차과태로 징수를 작년 두배

순창군이 지난해 보다 200%에 달하는 자동차 과태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군에 따르면 금년 6월 20일 현재 자동차 과태로 징수액은 9천2백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징수한 4천6백여만원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징수했다는 것.

이처럼 지난해 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하게 된 이유는 담당부서에서 매 주 징수대상자 100명을 선정해 방문

또는 우선으로 직접 납부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군은 6월4천여만원에 달하는 자동차 체납과태료를 일소기 위해 먼저 독촉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소액 및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등을 통한 직접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와 함께 변호관 영치를 비롯한 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생태교란 가시박 제거작업

임실군이 생태계 교란종인 야생식물 '가시박' 제거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오는 10월까지 실시하는 가시박 제거 작업은 총작업 면적이 떨어져 급속히 번식하는 개화기 이전에 가시박 유묘 제거작업을 집중적으로 펼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시박은 서식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어 단시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9년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된 가시박은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좋아 주변의 나무 등을 고사시키는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아름다운 섬진강 천변을 따라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어 민·관 합동으로 제거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군은 옥정호에 서식하는 외래종인 큰입배스 포획활동을 실시하는 등 토종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